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한 효 순 율리아나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자원봉사자

IMF 직후인 1999년도에, 20년 동안 몸담고 있던 직장생활을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를 위해 무언가 봉사를 하고 싶다는 의지를 실현하고자 시작한 봉사자로서의 길이 어느새 14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이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많은 퇴직 무렵, 때마침 관내에 한림대 성심병원이 개원되면서 병원봉사자로서 첫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처음 제가 맡은 일은 도서봉사라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우들을 대상으로 책을 대여해주는 단순한 역할이었습니다. 병원에서의 봉사기간이 길어질수록 도서봉사도 좋지만, 환우들에게 직접 다가가 그분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옆에서 함께하고 싶다는 욕구가 커졌습니다.

그런 생각만 품고 있던 2003년, 서강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호스피스 일반인 과정을 공부하면서 호스피스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고, 환우들에게 제가 드리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랑과 삶의 태도에 대해 느끼고 배워가며 지금의 활동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호스피스 활동은 보통 병동별로 나눠 진행되는데 제가 처음 호스피스 활동을 시작하며 만난 환우들은 정형외과의 골육종 환우들로 아직 어린 아이를 비롯한 청소년, 청년들이 많았습니다.

처음 환우들을 접했을 때, 너무 예쁘고 순수한 아이들의 모습이 매우 애잔하게 다가왔습니다. 한참을 뛰고 놀아도 아쉬운 그 시기에 병원 안에서 오로지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컴퓨터 게임과 만화책이 전부였습니다. 그 환우들 중에 16살의 ○○가 아직

도 제 기억에 아련하게 남아있습니다. 골육종 환우들의 경우 치료가 진행되면서 다리를 절단하는 경우도 더러 있는데, 유난히 부끄럼이 많았던 그 아이는 수술시 마침 방학 기간이라 초등학교에 다니는 여동생까지 병원에 와서 엄마와 세 식구가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시간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봉사자의 위치에서 해 줄 수 있는 일이 기도 외에 아무것도 없음을 스스로에게 화가 나고 속상했었습니다.

하지만, 속상해하는 저와 반대로 의연하게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소녀의 모습에 제 스스로가 부끄러웠고 저를 반성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루하루 건강하게 숨 쉬고 있는 이 삶이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를 천만번 감사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도 부족하긴만, 매사에 불평과 불만을 토로한 제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현재 건강한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도 행복하고 감사한 일임을 다시 한 번 느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최근에 만난 환우 한 분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아마 제 호스피스 생활 중에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환우입니다. 그 환우는 세포육종을 앓고 있던 37세의 미혼 여성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병원 호스피스병동 환우 중 입원일수가 가장 길게 기록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병원에 오래 입원하신 분입니다. 저희 병원 모든 분들이 사랑하고 있으며, 환우 본인도 우리 봉사자에게 항상 친절할 말과 미소로 답해줘서 봉사자인 우리에게도 힘을 주는 환우 분이시지만, 처음부터 저희에게 그런 반응을 보여주셨던 분은 아니셨습니다.

처음 그 환우를 만났을 때 암세포로 인한 심각한 안구돌출의 외모 때문인지 처음 저희 봉사자들이 방문했을 시 반가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계속해서 방문하면서 함께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 분께도 조금씩 변화가 오기 시작한 것이 현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입원일수가 초과되어 퇴원해야 할 상황에 이른, 이 환우를 위해 호스피스병동 수녀님께서 1일 추억 여행을 계획하셨습니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수녀님, 봉사자, 응급차의 기사님 등 모든 인력이 동원되어 오직 한 분의 환우를 위한 특별한 여행을 준비한 것입니다. 여행지는 수녀원이 운영하는 과수농원으로 아주 아담하게 만들어진 집으로 한 가족이 머물기에는 아주 적합한 곳입니다. 작년 8월은 유난히도 비가 계속된 이상기후로 이날도 역시 비가 오락가락하는 날씨였음에도 하느님께서 돌봐주셨는지 저희가 이동할 때마다 비가 멈추곤 하여, 여행의 맛을 더해 주었습니다.

하느님과 함께한 특별한 1일 여행은 남양성지에서 싱그러운 자연이 주는 안식과 두 팔 벌려 사랑으로 안아 주시는 예수 성심상을 마주한 환우의 모습에서 평화로움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품 안 가득 느껴지는 풍경 속에서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식사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하고 행복

한 시간이었습니다. 그 날만큼은 현재 본인의 모습은 잊어버리고 지금 이 시간을 소중하게 즐기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어떤 모습, 어떤 자리에서든 현재에 감사해야 한다는 아주 평범한 진리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호스피스 활동을 하면서 제 활동의 지표로 정한 말씀이 있습니다. ‘데살로니카 1서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봉사활동을 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것이겠지만, 봉사활동을 하면 할수록 봉사라는 것이 남을 위해 내가 희생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과정에서 배우는 삶의 교훈과 그 분들께 드린 것 이상으로 돌아오는 내가 받는 사랑이 더 크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주어진 모든 환경에 감사하며, 더욱더 봉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봉사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우리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